

법회안내

불교문화포교원 (02)308-9520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0시
문학법회 매
주 일요일 오
후 2시
주부문학법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1시
어린이정교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대원정사 (02)834-5125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0시
지정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대일기도 매월 24일(음) 오전 11시
가장장문법회 매월 1회

삼문사 (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학원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
전 11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장기법회 매월 21일 오전 11시
일반산도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삼락사 (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일반산도법회 매월 22일 오전 11시

지말사 (0361)242-6546
일반산도법회 매월 1·5·9(음) 오전
10시

능인사 (02)814-2060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1시
보통기도 매월 15일(음) 오전 11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지정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1시
금강정독송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일 선봉암 (02)906-0807
인연법회 매월 1일(음) 오전 10시 30분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30분

안동 유일사 (0571)858-0198
장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 10시
인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지정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홍릉사 (062)651-5083
산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 9시
침상법회 매월 7일(음) 오전 9시
지정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9시

혜진선원 (032)683-3326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0시 30분
보통기도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
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
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둘이면서 하나이기에 무촌지간(無寸之間)인 부부. 최근 불륜등의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에서 남편 물레 수전인원의 빗을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일 인천에서는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베란다 난간 20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서울 강남에서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고백받고 아내와 아들·딸을 흉기로 찌른 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5일과 7일 부산·서울에서는 가정불화로 아내를 둔기와 흉기로 각각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부부의 도리를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깃발을 보면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불이 난 것을 알며, 그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의 흥편을 알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다. <별역잡이환경>
■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지

부부

외도(外道)하는 자 악도에 떨어진다

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집이환경>
■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



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만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 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어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선생지경>
■ 아내는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다섯가지

넷째는 남편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집에 있는 가재구를 숨기지 않으며, 다섯째는 남편을 짐과 같이 여기는 일이다. <육방예경>
■ 여자가 스스로 여여됨을 잃어 남편을 임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너는 여여됨이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곳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여됨이니, 얼굴이나 머리털이 좀 잘 생겼다 해서, 그것이 여여됨인 것은 아니다. <육이경>
■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지 말고, 음행을 멀리 여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십선경>
■ 자기 아내에게 죽한 줄 알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술 마시기를 끊어버려야 하는 나라. <중이환경>

신행수첩

동사법으로 희망의 인생을

동화사포교원 관오사(주지 지도스님)는 20, 21일 관오사 법당에서 대화스님(명상집 주지)을 초청 동사법 법회를 봉행한다. 동사법이란 대승보살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 그 근거에 따라 교화하는 한 방편으로 보시법, 애어법, 이행법, 동사법의 4가지로 의미한다. 대구지역 최초의 동사법법회가 될 이번 행사에는 대인관계의 갈등 해소법, 마음 속의 분노와 원한을 식히는 방법, 효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주고 받는 기법 등 생활 속의 지혜를 법문할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18일, 선착순 50명. 회비 7만원. (053)784-3669

원효사상·고운 詩情 되살려

해동초조 원효선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추모대제가 부산시민의 날 행사중에 열린다. 대한불교원효종(종정 법흥)과 토향회(회장 김무조) 주최로 10월 4일, 5일 양일간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각종 민속행사와 농악놀이 연예인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시조, 한시 백일장과 서예경연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행사는 원효선사의 무애사상과 최치원선생의 시정(詩情)을 오늘에 되살려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듯. (051)627-5985

선의 바른길 '선문정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26일부터 제2학기 선학강좌를 개설한다. 목정배(동국대 불교학과)교수가 진행할 이번 강좌는 성철선사의 법어집 <선문정로>(장경각 刊)를 교재로 격주 금요일 오후 3시 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선문정로>는 정안조사들의 법어를 모아 성철선사가 재해석하여 선사상의 바른길을 제시한 것으로 '견성이

곧 성불이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자관(一字關)으로 유명한 운문스님의 어록 <운문록>(장경각 刊)을 교재로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신규탁(연세대 철학과)교수가 강의한다. (02)265-5215



◇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회 바른불교이카데미에서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한국의 유교와 도교'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보살계 수계로 참불자 되자

불자라면 누구나 법명을 받고 오계 내지는 보살계를 수지해야 한다. 참불자로 거듭날 기회인 보살계 수계법회가 28일 10시 30분 한국불교대일회(회장 이상우) 주최로 서울 대원정사에서 거행된다.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을 수계법사로 열리는 보살계 수계식은 연비를 받으며 그동안의 과오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2)754-1613

"문화재 아는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니, 보이는 것은 예와 다르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

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20일 오후 2시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영남대학교수를 초청, '문화유산을 보는 눈'을 주제로 토요일 공개강좌를 연다. 건축에 나타난 조형미와 자연미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맛과 멋을 소개한다. (02)398-5083

禪宗뿌리 구산선문을 찾아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전남대 박물관의 호남 문화유산 답사가 호남지역의 선문구산을 찾아 길을 나선다. 신리발 새로운 불교사상의 가치를

내걸고 지방 각지에서 크게 일어난 구산선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이번 답사는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개창한 홍척의 실상산문(실상사)을 비롯 해철의 동리산문(태안사), 도운의 사자산문(쌍봉사), 도의의 가지산문(보림사)을 둘러보게 된다. 출발은 28일 오전 9시 전남대 대강당 앞. 회비는 1만5천원. (062)520-7785

철로 선율과 함께하는 명상

법회도 흥행하고 참선과 취미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회동 대보사(주지 대승스님)는 18일부터 명상, 참선과 함께 취미생활을 배울 수 있는 명상회 회원 모집한다. 회원에 가입되면 야외법회시 법현스님의 철로연주와 함께 참선·명상하며, 지점도·연못만들기 등 취미활동도 배울 수 있다. (02)338-4595

엄격한 유교집안에서

자라난 덕택에 한학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자로 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뜻도 모른채 열심히 익혔다. 지금 생각하면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불교경전들을 한낱 한자교재로만 생각했던 나의 무지가 한없이 부끄럽다. 중·고등학교 시절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에서의 정공도 철학을 택했다. 인간의 본성과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 그 중 부처님 사상이 많이 내재돼 있는 인도철학은 매력을 끌기에 충분했다. 번뇌와 욕망이 많았던 대학시절, 광대무변한 불법의 진리는 세속의 시끄러움에 물들지 않고 소신대로 살려는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학문으로만 불교를 접했던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때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였다. 대학생 불교연락회의 초대 구도부장. 도를 강의하는 이 중책을 맡게 되면서 불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청담, 고암스님 등 훌륭한 큰스님들을 친견하는 법회에도 여러번 참석하였다.

여러 차례의 법문중 지금도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법어가 있다. "해인사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해인사에 왔느냐?" 고암스님이 조계종 중정에 취임하시며 봉행한 첫 법회에서 설하신 법어다. 이 법어를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화두처럼 간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철선사의 백련암 야외법회와 통도사에서 친견했던 월하스님의 법문은 불법에 심취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하루일을 시작하기 전 아침마다 집근처의 산을 오른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경근을 하며 걸다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 닦으며 휴식을 취하려고 바위에 걸터 앉아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환희심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나의 수행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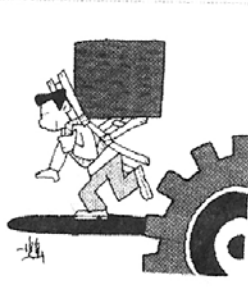


운석관

심과 환희심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도록 그곳된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도를 한다. 또 하심하며 겸허한 불자로서 살게 해달라는 서원도 빠뜨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참회의 염불

자신감 속에 신행... 부처님·선지식에 감사



시작된 하루의 삶은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함에 감사하고 불자임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하는 일마다 실패라 풀리듯이 잘 성취된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50평생을 살면서 큰 걱정없이 순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기도의 원력인 듯 싶다. 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식의 기복상기도는 하지 않는다. 평상심과 환희심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도록 그곳된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도를 한다. 또 하심하며 겸허한 불자로서 살게 해달라는 서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나 사람을 대하면 저절로 자선일이 생겨 일하는 대로 잘 해결된다. 기도하는 신

행의 나날이 계속되는 한 무슨 일을 해도 잘해 나갈 자신이 있다. 현재는 두가지 중책을 겸임하고 있다. 흥성기능대학 학장직을 맡아 선진 한국을 위해 유능한 기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제6교구 마곡사 신도회장으로서 본·말사 신도들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있다.

지금 환경 새모습을 단장하고 있는 기능대학 학생들에게 시간날 때마다 기능인이 되기에 앞서 인성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인성이야말로 인생행로를 결정짓는 조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진해온 결실의 산물인 만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부처님가피아래 살아왔고 양로도 부끄러움 없는 불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나는 큰 서원을 세웠다. "부처 자재의 형상불에 얽매지 말고 참존재를 찾기 위해 계속 수행정진 할 것이며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흥성기능대학장>

Advertisement for 'Sukppunggi' (Sukppunggi) health product. Features text: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 長壽 쑥뜸기',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제조원: 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회)'. Includes images of the product and a person using it.